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빙커

추정경 장편소설

주제어: 폭력, 상처, 회복, 화해, 성장

•책 소개

3학년 2반에는 모두가 싫어하지만 겁내는 아이가 있다. 바로 김하균이다. 같은 반인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김하균을 싫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주먹을 휘두르던 김하균에 대한 혐오가 폭발하고 교실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진다. ‘나’를 비롯해 여섯 명의 아이들이 주축이 된 이 사건으로 인해 김하균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따라간 나는 반 아이들이 모종의 합의를 통해 나를 폭행의 주동자로 교묘히 몰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려 학교로도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된 ‘나’는 그 순간 수신자가 없는 메시지를 받는다. “7시 55분까지 한강으로 와.” 꺼림칙한 기분에 한강으로 간 나는 강물 속으로 홀연히 사라지는 소년을 목격하고 구하겠다며 무작정 강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우연히 한강대교 아래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벙커’의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벙커. 그곳에서 ‘나’는 미스터리한 소년과 일곱 살 꼬마를 만나고, 두 사람의 도움으로 한 달 기한의 벙커 생활을 시작한다.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던 나는 어느 날 우연히 하균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나쁜 놈’ 하균에게 말 못할 아픈 속사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벙커로 몰래 숨어든 김 사장과 김 할아버지가 세 사람의 일상에 끼어들면서 벙커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메시와 약속한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잊고 싶은 현실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신비한 소년 ‘메시’와 ‘미노’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구도 본 적 없었던 한강대교 밑 ‘벙커’의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학습 목표

- ① 소설 내용을 근거로 작품에 드러난 소재나 인물의 행위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말할 수 있다.
- ② 작품에 제시된 소설적 장치를 이해하고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작품의 맥락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고 친구에게 상황에 맞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다.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듣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2	독서 중 활동	「암모니아」「그날의 김하균」 1. (추론적 읽기) 인물 평가하기 2. (분석적 읽기) 복선의 효과 파악하기 3. (비판적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3		「노들섬의 소년」 1. (분석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분석적 읽기) 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3. (분석적 읽기) 배경 묘사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인물의 심리 이해하기
4		「신의 아이들」 1. (추론적 읽기) 소재목의 의미 이해하기 2. (분석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행위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5		「그놈의 일기」 1. (분석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3. (감상적 읽기) 인물에 공감하며 읽기
6		「김 사장과 김 할아버지」 1. (분석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내용 추론하며 읽기
7		「운동화의 진짜 주인」 1. (분석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구절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8		「각성」, 「게르」 1. (분석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 행위의 의도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행위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9		독서 후 활동

1. 영상을 본 후 다음 물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관련 영상 : 청소년이 말하는 듣고 싶은 말 & 상처받는 말
<https://www.youtube.com/watch?v=RSuUuJeSvIM>

1)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2)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지도 TIP】

활동 전 소규모 모둠을 구성해 서로 돌아가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세요.

2. 영상에서 소개한 말 중 하나를 골라 그 말이 필요한 친구에게 전해봅시다.



관련 영상 : 자존감 높이는 말 (자존감이 낮은 10대 청소년들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_hl7aa5OuwE

_____ 에게

_____ (이)가

【지도 TIP】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로 힘들어했는지를 떠올려 상황에 맞는 말을 골라 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암모니아」에서 나타나는 김하균의 행동에 대해 평가해봅시다.



관련 영상 : 무리 속에서 현명한 이도 바보가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6nTz0LqGI>

2. 「그날의 김하균」을 읽고 <보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써봅시다.

<보기>

복선

복선(伏線)은 문학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미리 그 사건의 가능성을 암시해 두는 것이다.

복선의 역할

우연은 원인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을 제시했을 때 생긴다. 그러나 원인을 제시한 직후 결과까지 제시하면, 독자는 흥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결과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거리를 두고 원인을 먼저 서술한 다음 독자들이 원인을 잊어버렸을 때쯤 결과를 제시하여 필연적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복선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독자를 당황하게 하며, 이야기를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출처: 위키백과

[지도 TIP]

학생들이 찾은 구절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3. 다음을 보고 ㉠, ㉡, ㉢ 중 가장 잘못된 사람을 고르고 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보기〉

아무리 되돌려보아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다. ㉠윤석을 때린 김하균이 나쁜 건지, ㉡김하균 하나를 집단 폭행한 여섯 명의 아이들이 나쁜 건지, ㉢그걸 보고도 입을 다물고 방관한 다른 아이들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다.

가장 잘못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3. 책에서 소개한 병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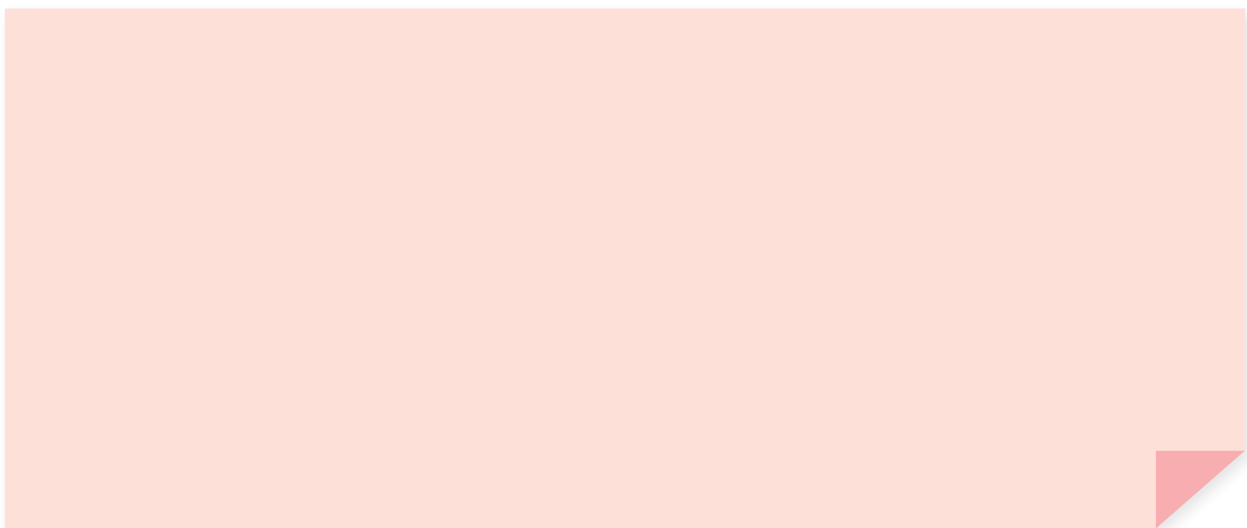


【지도 TIP】

묘사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활동입니다. 작품 속에서 묘사된 병커의 모습을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다음 상황에서 ‘나’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써봅시다.

나는 겨우 열여섯 살에 친구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49쪽)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소제목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신의 아이들」이라는 소제목에 드러난 '신'의 의미를 중심으로 소제목에 대한 인상을 쓰시오.

책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신'의 의미	책을 읽은 후에 파악한 '신'의 의미

【지도 TIP】

이 부분을 읽기 전에 먼저 소제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 후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소제목이 주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2.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봅시다.

• OX 퀴즈

- | | |
|---------------------------------------|-----------|
| ① 미노는 다리미를 무서워한다. | (O / X) |
| ② '나'는 메시에게 자신의 본명을 의도적으로 숨긴다. | (O / X) |
| ③ 메시가 제시된 병커의 세 번째 규칙은 노일노밥이다. | (O / X) |
| ④ '나'는 미노에게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 (O / X) |
| ⑤ 메시는 의식 불명의 환자들의 신발을 빼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 (O / X) |

3. <보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신발을 빼는 행위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봅시다.

〈보기〉 본문 63쪽

어서 빨리 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래서야, 이 운동화를 세탁해서 돌려주는 이유 말이야. 희망이란 건 반질반질 잘 닦아서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어야 하는 거니까.

1) ‘신발을 빼는 행위’의 상징적 의미

2) 그렇게 생각한 이유

【지도 TIP】

62~63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발을 빼는 행위가 절망을 덜어내고 희망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김하균의 가방에 들었던 것들을 써봅시다.



2.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본문 95쪽

“가자.”

“근데 미노는 언제 나온다냐?”

할머니가 메시에게 물었다.

“몰라요.”

“하긴 ㉠ 어리바리한 재가 언제 깨어나는지에 달렸겠지.”

“네?”

“이놈아, ㉡ 저놈이 쫓아낸다고 해도 미노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네 목숨 보전하는 거다. 찰거머리처럼 찰싹 붙어 있으라고.”

1) <보기>의 ㉠에서 드러난 ‘깨어난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2) ㉡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지도 TIP]

㉠, ㉡에 대한 정확한 답은 작품 뒤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복선임을 인지하고 뒤에 제시될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정도로 지도해주세요.

3. 김하균의 일기를 보고 난 후 김하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변화에 대해 써봅시다.

일기를 보기 전 김하균에 대한 평가	일기를 본 후 김하균에 대한 평가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써봅시다.

〈보기〉 본문 149쪽

“가출아, 힌트 하나 줄게. 토끼풀, 토끼, 개가 있어. 이 셋을 둘로 나눠 묶어봐.”

“뭘 소리야?”

“셋을 나눈다면 넌 어떻게 나눌 거냐고?”

“그야 토끼풀과 토끼, 그리고 개겠지.”

“그건 (㉠)(으)로 보는 거야. 넌 토끼의 식량은 토끼풀과의 (㉠)을/를 더 크게 본 거고, 반대로 동물이라는 (㉡)에서 보면 토끼와 개가 한 묶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섯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메시는 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야 너랑 미노랑 내가 한 팀, 저 김 사장이랑 할아버지가 또 한 팀 이렇게 나눠지겠지.”

“아니, 난 나와 미노를 하나, 김 사장과 할아버지, 그리고 너를 또 한 묶음으로 본다. 네가 본 건 네 눈에 비친 (㉠)로만 본 거고 내가 나눈 건 사람의 (㉡)로 나눈 거야.”

㉠ : _____

㉡ : _____

2. 작품 내용을 참고하여 불쏘시개와 장작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단어	 불쏘시개	 장작
정의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붙게 하려고 먼저 태우는 물건.	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서 쪼갠 땔나무.
상징적 의미		

[지도 TIP]

110~111쪽과 146쪽을 참고하여, 불쏘시개와 장작이 열정적인 삶과 연관 지은 비유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3.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추측해서 써봅시다.

<보기> 본문 150쪽

“잘해봐, 어쨌든 세 사람은 ㉠…….”

“세 사람은 뭐?”

메시는 대답 없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메시가 남김 그 뒷말의 여운이 알 수 없는 찻찻함을 남겼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봅시다.

• OX 퀴즈

- ① 병커의 실체는 미노의 마음이었다. (O / X)
- ② ‘나’는 ‘김 사장’이 미래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O / X)
- ③ 할아버지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김 사장’에게 싫은 감정을 내비친다. (O / X)
- ④ 메시는 김 사장이 초콜릿을 마음대로 꺼내먹을 것을 예측했다. (O / X)

2.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본문 169~171쪽

“너 저기가 평범한 곳은 아니라는 건 알지?”

“네.”

“그리고 그 메시란 놈이 누구인지도 알고?”

“네.”

“그럼 네가 왜 맨발로 거길 찾아가게 되었는지도 이해가 될 테고.”

(중략)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란 걸 믿으라고? 그걸 믿으라고?

1) ‘나’가 맨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봅시다.

2) ‘나’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 두 가지를 찾아봅시다.

3. <보기>를 통해 ‘벙커’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보기> 본문 188쪽

“아저씨한테 왜 내가 보일까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아저씨가 사람이든 영혼이든 나처럼 마음 붙일 곳 없이 떠돌다가 다른 사람 마음에 빌붙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진짜 자기 마음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마음 하나 쉴 곳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도 TIP]

‘마음이 쉬어가는 곳’을 작품의 부제로 제시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보기〉 본문 206~207쪽

이 의사가 뭐하고 했더라? 그래,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

“(㉠)이 아니면 네 이름이 뭐지 기억나니?”

“나는요…… 나는…….”

병커에 있는 동안 나는 그저 나일 뿐이었다. 메시는 나를 ‘(㉡)’이라는 별명으로 불렀고 나는 생각나지 않는 이름을 생각해내려 애쓰지 않았다.

병커에는 달력만 없는 게 아니었다. 그 흔한 손거울 하나 없이 그저 흔들리는 강물에 얼비친 내 얼굴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다.

“나는 (㉢)이에요.”

(중략)

“반장은 (㉣)이란 애야. 개는 널 때린 애고.”

- ㉠ : _____
- ㉡ : _____
- ㉢ : _____
- ㉣ : _____

2. (가)를 참고하여 ‘나’가 ㉠과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

〈보기〉 본문 188~232쪽

(가) 무슨 용기에서인지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가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사실은 모든 걸 망치는 게 바로 아저씨 자신이라는 거 아저씨도 알죠?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저씨 때문이고 사업이 망한 것도 결국은 아저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한 자신이 정말 밉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게 나 때문이란 그 말을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고요.”

“이 자식이!”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사는 인생, 싫지 않아요?”

(나) 웅숭그린 채 아무런 저항 없이 두들겨 맞는 내 얼굴 위로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던 반장의

인생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저 아이의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 자신을 지워버린 채 벙커로 들어갔던 것이다.

[지도 TIP]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싫어하며 거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3.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엄마'와 '어머니'라는 호칭이 주는 느낌을 비교해봅시다.

'엄마'라는 호칭이 주는 느낌	
'어머니'라는 호칭이 주는 느낌	

[지도 TIP]

'엄마'라는 호칭과 '어머니'라는 호칭이 주는 일반적인 느낌을 다양하게 나열한 후, 대조되는 것들끼리 짝을 지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2) <보기>에 제시된 장면에서 '나'가 엄마를 어머니로 부르는 행위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보기> 본문 228쪽

아줌마의 고백에 한참 동안 마음이 멍멍했다. 긴 침묵 끝에 아줌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너 그것도 모르지? 넌 엄마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던 거. 어찌면 네 말처럼 너는 정말 네가 아닌 다른…….”
아줌마는 흐느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죄송해요…….”
“엄마가 거짓말했어.”
“…….”
“넌 돼지고기 싫어하던 우리 하균이가 맞아. 싫다는 걸 내가 억지로 들이밀었던 거야.”

【지도 TIP】

이 작품이 김하균이라는 한 소년의 성장을 다룬 성장소설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도해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관련 영상 : 우리 아이의 진짜 고민을 알고 계신가요? | 김현수

<https://www.youtube.com/watch?v=xBjtXfwvRo>

1) '나'와 아버지와의 갈등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2) 동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버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3)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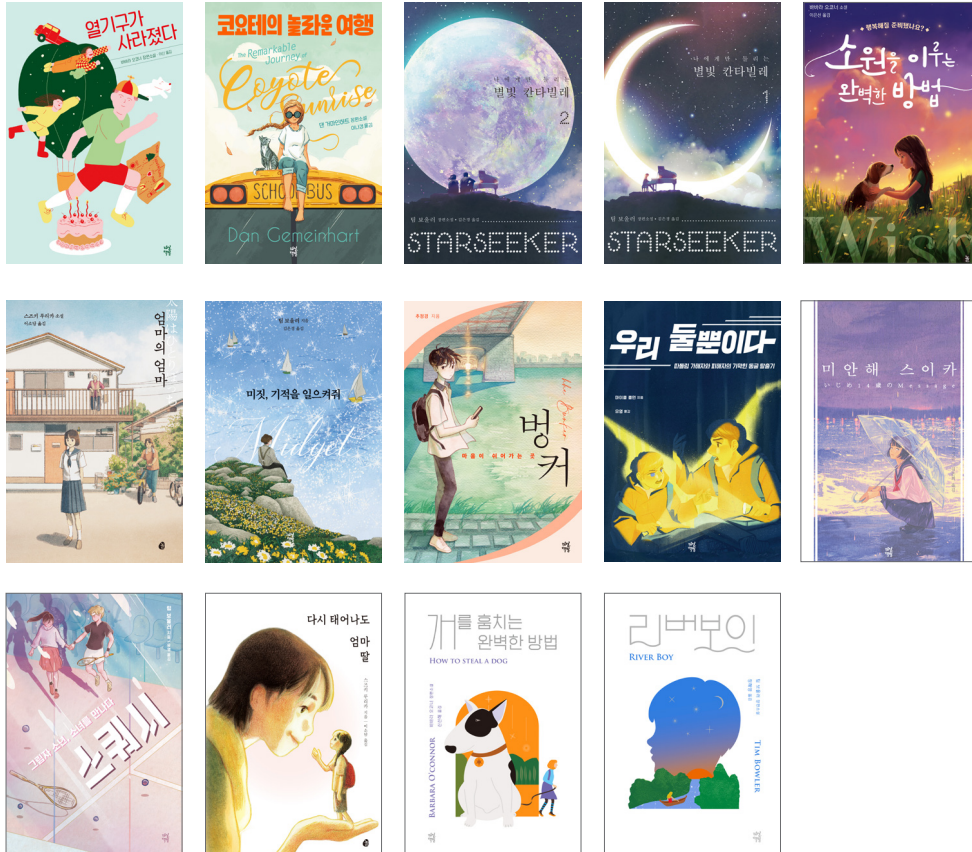
2. '나'는 '하루에 단 한 마디의 쓸데없는 말도 없이 오로지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몽골로 떠납니다. 여러분의 '몽골'은 어디일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보기〉 본문 239쪽

어차피 내가 숨을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었으니 또다시 병커가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더 커다랗고 넓은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어깨를 부딪치는 사람이 없고, 탁 트인 드넓은 벌판이 있고, 하루에 단 한 마디의 쓸데없는 말도 없이 오로지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았다. 그곳에서 일 년 동안 매일 나무에 물을 주고 초원을 거닐면서 내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비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울러 장편소설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울러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비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울러 장편소설
- 07 빙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04 스퀴시 팀 보울러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비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울러 장편소설